



**뮤지컬로 만난 '화려한 휴가'** 지난 2008년 상영돼 8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화려한 휴가'가 5·18 30주년을 맞아 뮤지컬로 제작돼 8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쇼케이스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앞으로 수정·보완을 거친 뒤 기성 뮤지컬 배우 등을 캐스팅, 5월께 정식 버전으로 제작, 전국 순회 공연에 나선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교원평가 학생·학부모도 참여

3월부터 전면 시행...수업·학생지도 등 18개 지표 동료간도 평가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태도, 학생 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 보수에 연계되지 않으나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별도 심층 심사를 거쳐 원격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기사 3면>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자문위(위원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는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했으며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은 인사

말을 통해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올해는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규칙은 평가 대상, 방법, 내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게 되며 시도별 규정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부는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 세부지표, 문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이 교육규칙과 매뉴얼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평가 문항지를 개발,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평가

는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이 중 교사 평가는 수업태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 문항에 대한 설문으로 이뤄지는데, 지표별 평가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5점 척도로 절대평가를 하면 그 결과 교사들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으로 통보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미흡한 교사에게는 별도의 심층 심사를 거쳐 재직 중 원격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등급별 연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학교별 평가 결과와 평가지 원본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1% 차이가 당락 좌우한다"

지방선거 입지자들 여론조사 '생존 경쟁' 백배

"마지막에 웃으려면 여론조사부터 통과해야 한다." 각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앞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이 한창이다.

여·야 모두 국민경선이나 시민배심원제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체육관형 직접 선거보다는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입지자들은 여론조사의 벽을 넘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우선 유명 정치인의 측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호가호위(狐假虎威)'형이 눈에 띈다. 어떤 직함과 경력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지지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입지자 대부분이 최대한 유명 정치인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광주 모 자치구청장 출마를 준비중인 A씨의 경우 전 시의원 직함으로 진행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1%대의 지지에 그치지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직함을 사용해 달라고 언론사 등에 요청하고 있다. 상대 후보인 B씨가 같은 여론조사에서

**호가호위형, 유명 정치인 편승**  
**조직동원형, 지지자 응답 권유**  
**파이팅형, 이슈 만들어 대립각**  
**음소형, 무조건 전화 걸어 부탁**

서 모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으로 소개돼 20%가 넘는 지지도가 나온 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를 동원하는 '지지자 동원형' 입지자도 상당수 있다. 조직을 동원해 ARS 등 수시로 이뤄지는 여론조사에 지지자들이 적극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경우다.

지역의 이슈를 찾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거나 상대 입지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슈 파이팅' 형도 있다. 최근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중

인 전 국회의원의 D씨의 경우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삭감을 광주시장 선거를 준비중인 현직 국회의원의 '책임론'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또 다른 광주시장 입지자는 상대 후보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것으로 언론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무작정 음소형'도 있다. 여론조사기관이나 여론조사를 준비중인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에는 이러한 전화통화가 매일 끊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를 핑계로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입지자도 많다. 특정 연구소나 언론사 등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속인 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인지도 여부를 묻는 식이다. 자신의 지지도도 확인할 수 있는데다 자연스럽게 입지자를 홍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이 단점인데다 선관위가 예외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원지 코리아컨설팅 박시영(42)부사장은 "유명 정치인의 보좌관이나 청와대 근무 경험 등이 입지자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기아차 노조 연초부터 파업

11일부터 소공장별 부분 파업...쏘울 증산 공사는 재개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초부터 파업에 나선다. 하지만 우려했던 광주공공의 쏘울 증축공사 현장의 접거농성은 철회해 공사가 재개됐다.

기아차 노조는 8일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광주공공에서 열린 임금교섭 관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광주공장 등 3개 공장에서 일교섭 보고대회 형식의 각 사업장별 2시간 총량제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회는 오는 11일 주·야간으로 나눠 소공장별로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 소하공장과 화성공장은 12, 13일 각각 2시간씩 보고대회 형식의 파업을 진행하고 노조 지부장이 임금교

섭 진행과정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까지 임금교섭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는 지난 6일 천막농성과 함께 봉쇄에 들어간 쏘울 증산을 위한 제2공장 증축공사에 대해 봉쇄조치를 풀고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오전 증축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역경제 주·야간으로 나눠 소공장별로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던 쏘울 증축공사 접거농성이 원만히 해결돼 다행이다"며 "지역경제를 고려해 노사가 상생·화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아차는 회사 측이 '성과급 300%, 현금 460만원 지급'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현대차와 견줘 '성과급 300%, 현금 500만원, 주식 40주 지급'을 요구,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튼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